

고창군, 어업질서 확립 나서

포획금지체장의 준수여부·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행위 등 단속

고창군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불법어업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고 준법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어업을 금지하는 수산법 개정 등에 따라 근해어선의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포획 채취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포획

금지체장의 준수여부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을 유통 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계획이다.

봄철 산란기와 가을철 성육기인 5월과 10월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도 강화된다.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을 활성화 하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로 불

법어업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기반조성을 위해 구시포 항내에 어업지도선 계류시설을 도비 2억, 군비 1억 예산으로 6월까지 설치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창군 어업지도선 전북208호(18톤)는 1994년 건조되어 현대화된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이 올해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에 5억원과 고추·논콩 생산장려금에 20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해 우수한 품질의 장류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순창군, 장류원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진행

농산물 계약재배·고추·논콩 생산장려금 등 25억원 투자

순창군이 올해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에 5억원과 고추·논콩 생산장려금에 20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해 우수한 품질의 장류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군은 우선 장류제품의 주원료인 고추와 논콩을 장류제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추, 논콩 등 장류원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장려금 지원은 고추의 경우 순창군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 내에 논, 밭 구분 없이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생산장려금을 ha당 150만원(논)을 지원한다. 논콩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내에 지목이 답(논)인 필지에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ha당 200만원 지원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류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계약재배는 농가들이 가격폭락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질 좋은 순창산 원료로 장류제품을 생산해 순창 장류제품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건고추, 메주콩, 겉보리, 참쌀 4개 품목이 대상이다.

4월까지 업체 및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뒤 6월부터 생산농가 및 장류업체간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두 제도가 농가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업체에는 믿을 수 있는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또 군의 장류제품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기업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2017년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본격 운영한다.

20일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치산업단지내 공사용 자재 생산기업 10개소를 방문하고 주요사업 부서장과 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대표의 제품설명과 생산시설 견학, 근로자 격려 등으로 진행하였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 속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과 사업부서간 생산품목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시장실 첫 테

마를 선택하였다.

이동시장실은 광치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3월 29일 노암산업단지 11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매월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 등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남원시는 노암과 광치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에 음식료품과 금속기계, 전자제품등이 생산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행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주요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 민원사업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장류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가 12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제 주제·대표 프로그램·포스터 디자인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오는 4월 3일까지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주제 및 대표프로그램 제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포스터 디자인은 인쇄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응모할 수 있다.

작품내용의 주안점은 순창장류축제를 효과적으로 연상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참을 유도하는 젊은 축제, 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미래형 축제의 표현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4월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고 주제와 대표프로그램 선정 작에는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포스터 디자인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포스터 제작을 위탁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행정을 쉽게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가 지역민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큰 인기를 반영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3명의 마을세무사가 분기별로 상담·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촌주민 및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상담이 어렵거나 별도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e-mail 등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만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20일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사무소

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 첫 방문상담은 30여명의 주민이 몰려 인기를 받았다.

홍효덕 재무과장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지역민의 편리함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평소 농촌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금 문제 해결에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두 번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오는 6월 19일 청용면, 신평면, 성수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정팀(☎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결핵예방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제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 시장을 순회하며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관촌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임실시장, 22일 강진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침예절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결핵퇴치를 위한 모두의 동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결핵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비롯해 마스크 등을 배포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린다.

군 관계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로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기침, 발열, 객혈,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 나서

31개 소하천 전주조사 실시

임실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유실 및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17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전주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17개소를 선정했다.

오는 4월 완료될 목표로 총 1억5천만원을 투입해 하천 준설작업 및 잡목제거를 실시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선제적 예방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내구소, 시목소, 내량소, 상기소 등 하천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 일환으로 6억원을 투입해 국토부,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간 재난관측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